

### ■ 주5일 수업 전면 실시 한 달

# 학원가 북적북적... 토요교실은 한산

## 과학·수학·음악반 방과후 학교 선호

‘전면 주 5일제 수업’ 시행이 한 달째 접어든 가운데 주말 학원가에 수강생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토요일에 근무하는 맞벌이 부부들은 사교육비 부담 때문에 학원을 보낼 수도, 마냥 아이를 집에 홀로 놔둘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이래저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학원가 북적=학원가는 전면 주 5일제 수업 실시로 활기를 띠고 있다. 수강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의 문의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요 강좌는 중·고

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국·영·수, 논술이 주류다. 학원 밀집지역인 광주시 남구 주월동의 한 영어학원은 토요일 수업을 새롭게 편성,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다. 수강료는 주3회 1일 2시간 기준 25만~28만원이다.

서구 치평동의 한 어학원(영어)도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주말 특별반(3시간)을 개설, 학생수를 늘리고 있다.

이 학원 관계자는 “격주로 늘던 ‘놀토’때에는 학원 수업을 진행하기 힘들었지만 매주 토요일 고정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남구의 대형보습학원 관계자는 “토요일 오전 교습 시간을 확대하고, 새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주5일제

수업을 준비해 왔다”며 “수강생들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 증가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광주의 한 중학교 교장은 “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 증가를 우려해 토요 프로그램은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학교의 경우 참여율이 10%에 그치고 있다”며 “토요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대부분 학생들이 영어·수학 등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바엔 차라리 학교에서 토요 보충수업 등을 실시하는 편이 나을 것 같다”고 꾸짖었다. ◇토요 프로그램은 한산=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4일 현재 초

중교생 2만7392명(293개교)이 학교의 토요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학생의 11.9%에 불과하다. 토요 프로그램은 수업이 없는 토요일에 스포츠·예술 교육 프로그램 및 맞벌이 가정을 위한 돌봄교실 등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만들어졌다.

학생들은 정규교과 외 과학·수학·음악반 등으로 구성된 토요방과후 학교를 가장 선호했다. 참가 인원은 토요방과후 학교(158개교·7651명), 스포츠 데이(163개교·5598명), 문화·예술(51개교·1013명) 토요 돌봄교실(122개교·702명) 순이었다.

/윤영기·김대성·김경민기자 penfoot@

## 장흥 장애여성 성폭행

### ‘인면수심’ 노인들 중형

한 마을에 사는 지적장애 여성을 수년간 성폭행한 노인들(본보 2011년 11월21일 1·6면)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장흥지원(지원장 송혜영)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60)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5년과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토록 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위모(78)·장모(72)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각각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 여성이 친척(7촌) 관계인 이씨를 수년전부터 ‘큰 아빠’로 불렀던 점에 비추어 지역사회에 충격적인 사건으로 비난받아 마땅하고 검

찰조사 과정에서 시인한 사실을 법정에서 부인한 점 등으로 미뤄 반성의 기미가 없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위씨와 윤씨는 지적장애로 분별력이 떨어지는 피해 여성을 과자와 돈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씨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장흥군 관산읍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과 승용차, 추사동지에서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A(여·22)씨를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지난해 초 같은 동네 주민 오모(70)씨도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 나원침 (8534) 김장동



### 임대 건설장비 팔아 1억 착복

여수경찰은 29일 전국을 돌며 임대 한 건설장비를 팔아 1억여원 상당을 착복한 강모(49)씨를 사기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2월 여수시 충무동 모 건설장비 임대업체에 “여수박람회장에서 건설업을 한다”고 속여 임대한 110만원 상당의 발전기를 되파는 등의 수법으로 지금까지 전국 20여개의 업체에 1억여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 버스 옆좌석 짐든 여성 더듬어

○버스 옆좌석에서 곤히 잠들어 있는 20대 여성의 은밀한 부위를 더듬은 음흉한 50대 남성이 경찰서행.

○광주광안경찰에 따르면 박모(59)씨는 지난 28일 낮 12시30분께 광주시 관산구 송정동 한 도로를 지나가는 버스 안에서 옆좌석에 타고 있던 A(여·20)씨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더듬었다는 것.

○박씨는 “A씨가 너무 곤히 잠들어 있어 모를 줄 알고 순간의 충동을 참지 못해 잘못을 저질렀다”며 뒤늦게 후회.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하마터면 큰일 날 뻔

### 학부모 총회 고교서 LPG 누출 대피소동

광주 한 고등학교의 가스저장탱크에서 누출 사고가 발생해 학생과 학부모 수백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29일 광주시 서구 모 고등학교와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7시20분께 이 학교 급식소 옆에 설치된 2.9t LPG 저장탱크에서 가스가 새고 있는 것을 경비원(60)이 발견, 119상황실 등에 신고했

다. 이 사고로 야간자율학습 중이던 1~3학년 학생 600여명과 총회에 참석했던 학부모 수십여명이 1시간20분 가량 운동장 등지로 대피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폭발시 주변 여건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나 그 피해가 100여m 이상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사고 직후 119소방대원과 한국

가스안전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직원들이 출동해 가스를 차단하고 안전조치를 취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가스 저장탱크의 경우 화재 등과 같은 사고 발생시 압력으로 인한 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 압력 이상으로 올라가면 가스를 밖으로 방출하는 안전밸브 장치가 설치돼 있다”며 “현재로서는 이 밸브가 이물질이나 노후화로 인해 오작동한 것으로 추정, 교체 후 정확한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 관계자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학생 전원을 즉각 대피시켰다”며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시탕떡 만들기 체험

29일 오후 광주시 북구 향토음식박물관에서 상록유아스포츠타안 어린이들이 형형색색의 ‘눈꽃시탕’과 ‘시탕떡’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목포행 KTX 무안서 34분 스톱

### 기계 고장 연착... 출근 승객 항의

광주 송정역에서 목포로 향하던 ‘KTX산천’이 멈춰, 출근길 시민이 큰 불편을 겪었다.

29일 코레일 광주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6분 송정역을 출발, 목포로 향하던 KTX산천이 무안 문탄~일로 사이에서 멈춰 섰다.

잠시 뒤 열차는 운행을 재개했으나 종착역인 목포에는 예정 도착시간(8시39분) 보다 34분 늦게 도착했다. 이

열차에는 광주에서 목포로 출근하는 공무원과 회사원 등 67명이 탑승 중이었다.

코레일 관계자는 “일부 장치가 고장이 나면서 안전시스템이 작동돼 열차가 멈춰, 기관사가 곧바로 조치를 취했다”며 “기계적 결함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여기자 성추행 의혹 검사

### 광주고검으로 전보

대검찰청은 지난 28일 서울 남부지검 검사들과 출입기자단 회식에서 여자자들을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진 최모 부장검사를 30일자로 광주고검으로 전보와 동시에 대기발령한 후 검찰에 착수했다.

광주고검 관계자는 “해당 부장검사에 대한 발령은 사실이며 검찰 결정에 따라 인사 조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檢, 박주선 의원 당분간 소환 않기로

### “민감한 정치적 현안 부담” 총선 이후될 듯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주선 의원에 대한 조사가 4월11일 선거일이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9일부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현역 국회의원이자 후보자인 박 의원의 소환에 검찰이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박 의원을 조

사하는 데) 중간 단계에서 문제가 생겨 이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현역 의원이자 후보자인 박 의원의 조사는 대검과 상의해서 결정하는 데 불리한 것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박 의원을 체포할 경우 민감한 정치적 현안이 될 수밖에 없고 소환하더라도 이에 불응할 가능성

이 높을 것이라는 검찰 내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직 동장 투신으로 불거진 광주시 동구 불법선거와 관련 검찰 수사는 당분간 소강상태에 접어들 전망이다. 이번 수사로 지금까지 박 의원을 돕기 위해 유사기관 설치를 지시하거나 참여한 혐의 등으로 유대명 동구 청장 등 10명이 구속됐으며, 8명이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검찰은 구속기간 만료일이 다가오면서 다음달 6일까지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모두 기소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호남총판 광주 1호점**

# 안동 간고등어

오른기름  
고등어먹고 제주도로!

10박스 이상 구매시  
제주도 왕복 항공  
여행상품권 증정 2인(2박3일)  
호도선물로 증습니다!

안동간고등어  
선/물/박스 ₩12,000~

광주지역  
당일배송

제주도 2인 왕복항공여행권을 소지하고객만의 혜택

제주왕복항공요트무료여행권

요트투어 무료이용

제주2박3일 일주여행

렌트카무료

문의전화 1577-4929  
H.P 010-5760-9179  
www.honamgodunga.com

영업사원 및 딜러 대모집  
여행 및 레저 사업부 0명 / 기업 특관 유통사업부 0명  
(주)헤브론국제무역 / 히든여행사 광주점

## 농성동 리더스하이 주택전시관

매매

사업명	(주)헤브론주택전시관 및 사옥신축공사		
사업장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45-1번지		
대지면적	2,411.20㎡ (729.39평)		
용도지역	일반미관지구, 최고고도지구, 준주거지역	용적률	478.73%(법정: 480%)
건폐율	59.53%(법정: 60%)	최고높이	55.50m
규모	지하0층 지상 9층	건축면적	11,543.18㎡ (3,491.81평)
건축면적	1,435.47㎡ (434.23평)	주차대수	80대(법정 72대) : 본관 24대, 부설주차장 56대
승용승강기	17인승(4대), 15인승(1대) 총 5대	부설주차장	대지면적 201.3평, 연면적 1,233.4평, 지상3층 철골조
에스켈레이터	상, 하 전용왕복 에스켈레이터 시공: 1층~7층까지 설치	승용승강기	17인승(4대), 15인승(1대) 총 5대
용도	근린생활시설(금융, 소매점, 일반음식점), 문화집회시설 및 업무시설		

  

층별	면적	평	총고	용도
1층	1,374.92	415.91	4.8m	근생, 업무시설, 기계실
2층	1,346.28	407.25	7.5m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3층	1,355.08	409.91	7.5m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4층	1,359.78	411.33	7.5m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5층	1,360.28	411.48	3.75m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6층	665.60	198.32	3.75m	업무시설(사무소)
7층	1,375.18	415.99	4.8m	업무시설(사무소)
8층	1,385.18	419.02	4.8m	업무시설(사무소)
9층	1,330.88	402.59	4.5m	업무시설(사무소)
소계	11,543.18	3,491.81		

  

장부가격(감정가)	14,000,000,000원
매매예정가격	12,000,000,000원
현공정율	약 85% 진행
적용가능용도	예식장, 주택전시관, 업무시설, 컨벤션센터, 일반전시관, 교육장, 학원시설 및 실내 유틸리티, 워터파크, 영화관, 극장, 종교집회 시설 병행용 최대층고가 7.5m이므로 다양한 건축물의 시공, 용도군 도입가능 함

**문의처 : 010-3625-6984**